

웅치전투의 역사적 현장 '완주군'

소양면 웅치전적지 유적조사서
성황당·추정진지·봉서터 확인

완주군 소양면 일원이 웅치전투의 역사적 현장이었음이 확인됐다.

완주군은 전북도와 웅치전적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매장문화재조사 결과, 성황당 터와 추정진지 터, 봉수 터의 위치와 규모가 확인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성황당 터는 평면형태 타원형으로 규모는 길이 14.0×27.5m, 최대높이 6m가 잔존하고 있으며 다양한 크기와 재질의 석재들로 자연 암반에 덧대어 조성됐다. 내부에서는 조선시대 자기편도 출토됐다.

봉화터는 해발고도 500m 봉우리(건지봉)의 정상부에서 확인됐으며, 장축길이 7.5m, 단축길이 6.5m 내외의 방형(사각형)이다.

내부에서는 타날린 격자무늬, 승선문 등이 문양된 회청색경질토기가 수습됐다. 추정진지 터는 주변에 산재한 석재를 활용하여 'ㄷ'자 형태로 쌓아올린 유구로 인위적으로 조성됐다. 이를 종합해보면 완주군 소양면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교통과 통신의 거점지였고, 진안군뿐만 아니라 완주군 지역에도 웅치전투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증자료가 잘 남아 있음을 확인한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웅치전투는 1592년(선조 25년) 7월 8일 조선 관군과 의병이 호남을 공략하기 위해 전주부성으로 침략해오는 왜군에 맞서 진안에서 완주로 넘어가는 웅치 일대에서 이를 동안 사투를 벌인 역사적 사건이다.

웅치전투는 조선군이 전멸할 정도로 치열한



완주 추정진지터 전경.

각축을 벌여 왜군의 주력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이후 소양 구진벌과 안덕원에서 왜군을 격퇴해 왜군이 전주부성에 당도하지 못하고 철수하게 함으로써 호남방어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9월 완주군이 개최한 역사재조명 학술대회에서 향후 문화재 지정 및 정비의 중점과제로 제시되었던 실증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이 수행했고, 올해 상반기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성황당 터, 추정진지 터, 봉수 터 3곳(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 51 일원)을 대상으로 올 8월부터 진행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웅치전적지의 실증자료를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를 추진해 완주군 역사를 정립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완주군 일대에서 펼쳐진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 승리의 '웅치대첩'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완주정신 정립의 주요 키워드로 육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이번 조사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웅치·이치전투기념사업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전 10시 완주군 문예회관에서 '2018년 완주 웅치전적지 매장문화재 조사성과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공간으로 발전하도록 힘쓸 것”

공립박물관 발전 최종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5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물관 운영위원회와 관련부서 실무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공립박물관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 최종 보고회는 지난 중간보고회에서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진안군 공립박물관인 역사박물관과 가위박물관 2개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합박물관 계획을 제시했다. 용역을 연구한 (주)심랜드 심근정 박사는 전국의 주요 공립박물관 운영 실태와 진안군 공립박물관과 유사한 박물관의 운영사례를 보고하면서 진안군 공립박물관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진단 결과 현재 진안역사박물관과 가위박물관은 모두 위치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역사박물관 옆 도로변에 가위박물관을 위치시킬 경우 상



진안군이 지난 5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물관운영위원회와 관련부서 실무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공립박물관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호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운영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그간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진안을 대표하는 역사박물관과 가위박물관

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제시된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완주 책박물관.

‘황금빛 화가’ 삼례에 오다

완주 책박물관, 오늘부터 '구스타프 클림트 판화전'

완주 책박물관(관장 박대현)은 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빛과 생명·구스타프 클림트 판화전'을 개최한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화가로 올해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 되는 해다. 황금빛으로 대표되는 그의 작품에는 무한한 부드러움과 예민한 비밀스러움이 여성적인 상냥함으로 가득 차 있다. 선정적이며 요염하기까지 한 그의 작품세계는 같은 오스트리아 화가 에곤 실레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1890년대 유럽은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개혁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견해를 달리하던 역사의 전환기였다. 당시 빈의 부르주아는 전통을 중시하였기에 클림트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았다. 클림트의 선정적인 누드와 해골이 공존하는 그림은 보수주의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그의 작품은 우리

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번 전시는 클림트의 동판화 3점과 석판화 14점을 중심으로 실례의 동판화와 석판화가 각각 2점이 전시된다. 이를 통해 당시 유럽 미술의 거장 클림트의 미술세계를 가까이서 보게 될 것이다. 특히 20세기 초 서양의 동판화와 석판화 기법을 통해 우리 인쇄 문화의 흐름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책박물관에서는 클림트 판화전을 계기로 에곤 실레, 마르크 샤갈, 호안 미로 등의 판화전도 계획하고 있다. 책으로 삼례를 뒤덮고 싶다는 완주군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박관장이 이제 판화와 그림전시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전북도와 완주군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삼례책마을(063-201-7820)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고창군,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참가자 모집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접수

전국 최고의 어린이 판소리 등용문인 '제31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참가자를 오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이번 대회는 고창군(군수 유기상)과 KBS 전주방송총국(총국장 김종진)이 공동 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하며, 차세대 어린이 판소리 명창을 발굴 육성하고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문화예술사업 업적을 기념하며 유업을 계승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대회 참가는 2017~2018년 국악대회에 참가

하여 입상한 전국의 남·여 초등학생으로 고창 문화의전당(063-560-8041)에 신청하면 된다. 전국 최고의 판소리 명창 꿈나무를 선발하는 이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회는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오는 11월 11 예선을 거쳐 11월 12일 KBS전주방송총국 녹화로 축하공연과 병행하여 예선을 통과한 7명의 어린이가 본선 경연을 한다.

한편, 고창군은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신재효의 유업을 계승하고 판소리 발전을 위해 동리대상, 상설 국악공연,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명창 초청공연, 판소리 체험 등 판소리 성지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